4600만명 카톡 공짜전화 시작 소비자 대환영

통신업체들은 '패닉'

우리나라 국민의 4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가입자(국내 3500만명, 해외 포함 4600만명)를 보유하고 있는 카카오톡(카톡)의 음성 통화가 가능해져 통신업계에 지각변동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스마트폰 등장 이후 무료 문자에서 무료 통화에 이르기까지 정보통신시장에 등장한 '무료' 서비스는 그동안 소비자들에게 과도한 통신비를 부담시켜 비난을 받았던 기존 업체들의 영업 방식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카카오톡의 무료 통화서비스는 우선 이용자들이 유료로만 알고 있었던 음성 통화에 '공짜'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있다. 통신사가 망을 독점한 채 요금을 부과했던 문자메시지가 카카오톡의 출현으로 큰 변화를 겪었던 것처럼 음성 통화에서도 이 같은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 실제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당장 줄어드는 통화 수입보다 더 두려운 것은 '음성통화도 공짜'라는 인식이 확산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회사원 박정길(33)씨는 "음성 통화가 길어지면 '요금제 한도를 초과하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카톡처럼 아는 사람들 대부분이 가입해 있는 서비스를 이용해 인터넷망으로 통화를 하면 이런 걱정 없이 맘껏 통화할 수 있을 것같다"고 반겼다.

많은 소비자들이 이통사의 음성통화를 이용하지 않고 보이스톡으로 이동하리라는 것도 예견된 일이다. 카카오는 지난 4일 보이스톡을 위한 테스터를 모집한다고 공지하고 자체 서비스망을 통해 무료 음성 통화를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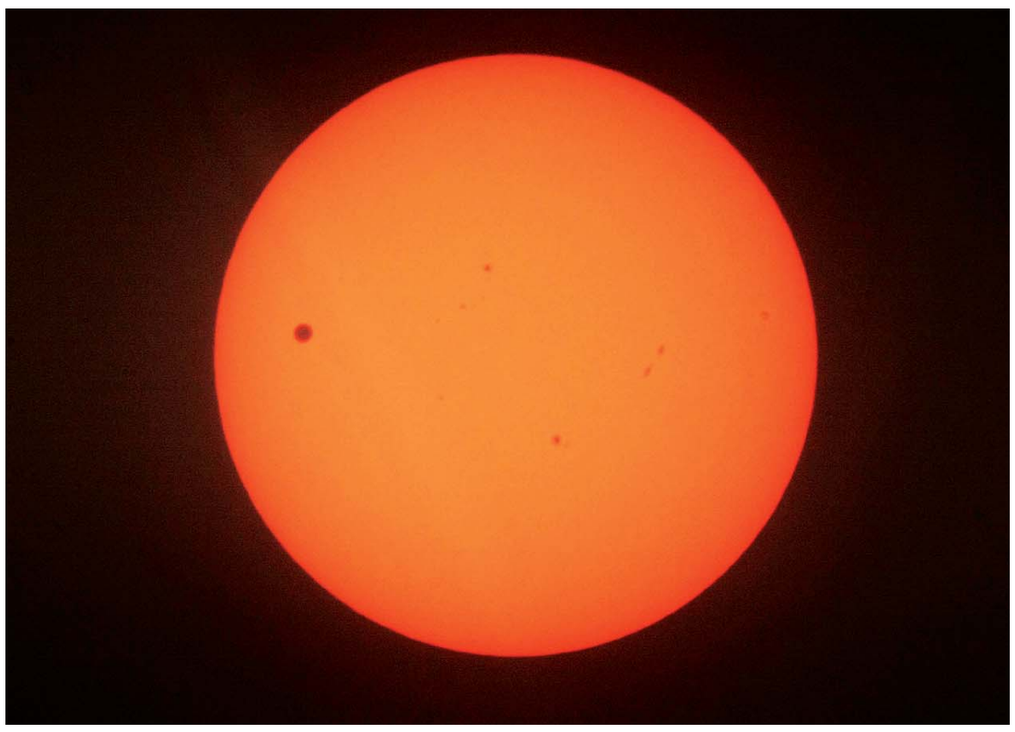
보이스톡 서비스를 이용해본 이은정(32)씨는 "장시간 통화는 그렇지만 간단한 대화를 하기에는 편했다"며 "지인들과 연락을 주고 받을 때는 전화대용으로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통화중 잡음이 많고 자주 끊기는 문제가 있었으며 서비스 품질은 개선되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카카오톡의 무료 통화 반란으로 통신업계는 패닉 상태에 빠졌다. 업계에서는 '사실상 제4 이동통신이 출현한 것'이라고 표현할 정도이다.

벌써부터 이통사를 옮겨 타거나, 음성통화 부분을 줄여 휴대전화를 새롭게 코디하려는 움직임도 일고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보이스톡 서비스가 알려지면서 벌써부터 음성 통화 시간을 줄이는 등 요금제 변경을 문의하는 상담이 들어오고 있다"며 "이에 응대하느라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밝혔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세기의 우주쇼' 태양-금성의 만남

금성이 태양앞을 가로지르는 우주쇼가 6일 오전 7시 9분부터 오후 1시 49분까지 400분간 광주·전남 등 우리나라 전역에서 펼쳐졌다. 태양의 32분의 1 정도에 불과한 금성(왼쪽 까만 점)이 태양의 밝은 면을 천천히 지나고 있다. '금성 태양면 통과 현상'은 지구-금성-태양이 일직선상에 놓이고, 지구의 공전궤도와 금성의 공전궤도 간에 교차점이 생길 때만 발생한다.(캐논 40D+1000mm+태양필터 사용)

/광주시 광산구 첨단 종합운동장=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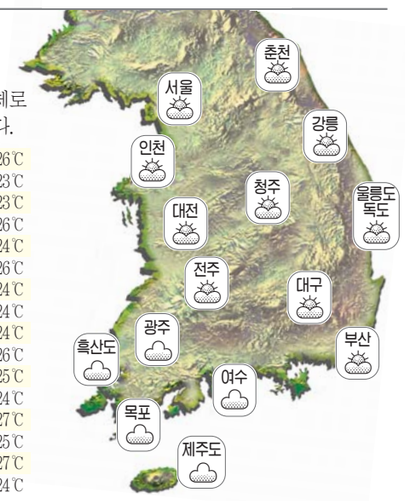
오늘 날씨

해뜸 05시 18분 해짐 19시 45분 달뜸 22시 17분 달짐 08시 04분

내일까지 5㎜ 비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대체로 흐리고 밤부터 비가 오겠다.

광 주	흐림	19/26℃
목 포	흐림	18/23℃
여 수	흐림	19/23℃
나 주	흐림	18/26℃
완 도	흐림	19/24℃
구 례	흐림	18/26℃
강 진	흐림	19/24℃
해 남	흐림	19/24℃
장 흥	흐림	19/24℃
순 천	흐림	20/26℃
영 광	흐림	18/25℃
진 도	흐림	19/24℃
전 주	구름많음	19/27℃
군 산	흐림	19/25℃
남 원	구름많음	18/27℃
흑산도	흐림	18/24℃



〈오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남~남서	0.5~1.0m
먼바다	남~남서	0.5~1.5m
남해 서부 앞바다	남~남서	0.5m
먼바다	남~남서	0.5~1.0m

식중독지수	자외선지수	피부질환지수
경고	보통	높음

〈오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남동~남	0.5~1.0m
먼바다	남동~남	0.5~1.5m
남해 서부 앞바다	남동~남	0.5~1.0m
먼바다	남동~남	0.5~1.5m

	밀물	썰물
목포	04:18 16:14	09:27 21:26
여수	11:01 23:41	05:01 16:57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8(금)	9(토)	10(일)	11(월)	12(화)	13(수)
날 씨						
최저/최고	19/26	18/28	18/28	17/27	17/27	17/27

오늘 첫 모의수능…전국 67만명 응시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11월8일)의 출제경향을 가늠해볼 수 있는 모의 수능이 7일 전국 고교에서 일제히 치러진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이번 모의고사를 EBS 수능교재 및 강의에서 70% 정도 연계해 출제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7일 오전 8시40분부터 전국 2129개 고교와 278개 학원에서 67만5561명이 응시한 가운데 6월 모의평가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응시자 중 재학생은 59만3886명, 졸업생은 8만1675명이다.

이과형인 수리 '가'형 응시지원자는 21만1329명, 문과형인 수리 '나'형 지원자는 45만8009명이다. 탐구영역 지원자는 사회탐구 36만5408명, 과학탐구 25만3972명, 직업탐구 5만6020명이다. 직업탐구 영역 지원자수는 고졸취업문화 확산 등의 영향으로 작년 6월 모의평가 대비 1만7048명 감소했다.

이번 시험은 11월8일 시행되는 2013학년도 수능을 앞두고 두차례 치러지는 모의평가 중 첫 시험으로 수능과 출제영역, 문항수, 출제경향 등이 같다.

채점 결과는 26일까지 수험생에게 통보되며 성적통지표에는 영역·과목별로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 영역별 응시자수가 표시된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가출 10대 여성 4명중 1명 "성매매 경험"

가출한 10대 여성의 4명 중 1명이 성매매를 경험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서울시는 유쾌한섹슈얼리티인권센터와 함께 서울·경기지역 쉼터 25개소에 거주하는 10대 여성 17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성매매 경험이 있다'고 답한 여성이 25.1%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6일 밝혔다. 성매매 시기는 14~17세가 88.1%를 차지했고, 유형은 인터넷 등을 통한 '조건만남'이 83.7%로 가장 많았다.

성매매를 하게 된 계기(중복응답)는 '잘 곳이 없어서' 44.2%, '배가 고파서'와 '강요에 의해서'가 각 30.2%로 나타났다.

가출 후 돈을 벌어본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54.4%였고 이 중 '성산업 관련 일자리와 성매매'를 통해 돈을 벌어본 응답자가 55.3%에 이르렀다. '성산업 관련 일자리와 성매매' 경험은 조건만남(25.5%), 노래방(10.6%), 보도방(9.6%), 단란주점 및 룸살롱(3.2%), 키스방(3.2%), 성매매 집결지(2.1%), 티켓다방(1.1%) 순으로 집계됐다. /연합뉴스

필리핀서 한국인 2명 급류에 실종

필리핀 주재 한국대사관이 6일 "필리핀 마닐라 북서쪽 삼발레스 지역에서 한국인 김모(58)씨와 박모(45)씨 등 2명이 물에 빠져 실종됐다"고 밝혔다.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3일 밤 8시30분께(현지시각) 삼발레스 부카오 강에 있던 준설용 바지선에서 보트를 타고 강변으로 나가던 도중 배가 전복돼 물에 빠졌다. 이들은 당시 갑자기 불어난 강물에 휩쓸린 것으로 추정된다고 대사관 측은 설명했다. 현지 경찰 관계자는 김씨 등을 찾기 위해 해양경비대와 경찰 등 약 60명을 동원, 이틀째 수색을 벌이고 있지만 아직 이렇다 할 성과는 없다고 말했다.

사고가 난 부카오 강은 필리핀 지역을 엄습한 3호 태풍 마와르의 영향으로 폭우가 쏟아져 수량이 크게 불어난 데다 유속마저 빨랐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대사관 측은 전했다.

김씨 등은 해운업체 S개발 소속 직원들로 그동안 부카오 강 중앙에서 준설작업을 벌여왔다. 이들과 함께 보트에 탔던 다른 한국인 1명과 필리핀 1명은 강가로 무사히 헤엄쳐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연합뉴스

조선대 시립대 전환 촉구

광주시민모임, 서명운동 돌입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광주시민모임)은 조선대학교의 시립대 전환운동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7일 오전 조선대 정문 입구에서 진행한다.

광주시민모임은 보도자료에서 "조선대는 해방 직후 7만2000여 명의 시·도민들이 십시일반 뜻을 모아 설립한 대학인데도 사유화되면서 파행을 거듭했다"며 "또 다시 학내 이권다툼이 심해지며 이사장과 총장 선출이 미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광주시민모임은 이어 "조선대를 온전하게 광주시민들에게 돌려주는 것만이 가장 합리적인 해결책"이라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시립대학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광주시민모임은 이날 기자회견 후 시민들을 대상으로 조선대 시립대 전환을 위한 서명운동에 돌입할 방침이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학교폭력과 정신건강

서구, 13일 예방 강좌

광주시 서구는 "오는 13일 오전 10시30분 구청 대회의실에서 학부모 및 교사 등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 예방' 강좌를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날 강좌에서는 소아정신과 박순영 전문의가 '학교폭력과 정신건강'을 주제로 학교폭력 현상과 자녀를 지키는 방법, 부모와 교사의 효과적인 대처법 등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문의 062-350-4198.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내 건강수준은

북구, 혈압측정 등 검사

광주시 북구는 7일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청사 지하 민방위 교육장에서 지역 내 만19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내 건강수준 알기의 날' 행사를 연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광주시, 북구정신건강센터, 한국건강관리협회,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북부지사, 인구보건복지협회 등이 함께 참여한다.

건강캠페인 행사에서는 혈압측정, 복부둘레측정, 체성분 분석 및 영양상담, 골다공증 검사 등 신체검사와 스트레스 및 치매, 우울증 선별검사 등이 진행된다. 문의 062-410-8915.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